



한·몽골 예술교류축제

MONGOLIA-KOREA ARTS FESTIVAL

TIMEANDSPACE

제주 노마딕 예술 프로그램

Nomadic Arts Residency Program on Jeju Island

전시 Exhibition

2010. 12. 17(Fri) - 12. 30(Thu)

레지던시 Residency

2010. 12. 8 (Wed) - 12. 18 (Sat)

전시개막 Opening

2010. 12. 17 (Fri) 15:00

제주현대미술관 (저지문화예술인마을내)

JEJU MUSEUM OF CONTEMPORARY ART

www.jejumuseum.go.kr

문의 064_740_780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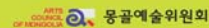
주최 HOSTED BY



외교통상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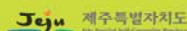


한국문화예술위원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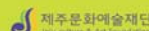


몽골예술위원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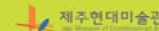
후원 SUPPORTED BY



제주특별자치도



제주문화예술재단



제주현대미술관

Contact

김이선 큐레이터 (기획, 홍보) Tel. 010-4553-9203 E-Mail: orumjk@naver.com

1. 행사 개요

행사명	한-몽골 예술교류축제 Mongolia-Korea Arts Festival <Time and Space 제주 노마딕 예술 프로그램>
일시	전시: 12.17(금)-12.30(목) - 개막식: 12.17(금) 15시
장소	제주현대미술관
주최	외교통상부, 한국문화예술위원회, 몽골예술위원회
후원	제주특별자치도, 제주문화예술재단, 제주현대미술관
행사구성	전시, 몽골 전통 음악 공연, 한국전통무용공연, 참여작가 퍼포먼스

2. 프로그램

<전시 Exhibition>

(1) 개요

이번 행사는 몽골과 한국의 예술교류 행사로 몽골의 광활한 초원과 고비사막 그리고 한국의 아름다운 섬, 제주도를 연결하여 ‘노마딕(Nomadic)’이란 키워드와 함께 ‘시간과 공간(Time & Space)’이란 주제로 새로운 관점과 신선한 시각을 확대하여 창출해 나가고자 하는 예술실험 프로젝트입니다.

참여작가들은 제주도 일대에서 10 일간 거주하면서 환경에 맞는 소재를 중심으로 개인작업, 공동작업을 추진하게 되며, 작업의 결과물들은 제주도 현대미술관에 전시함으로써 일반인들이 공유토록 하고자 합니다.

행사 개막일은 한국과 몽골의 전통적이면서 현대적인 공연예술을 소개함으로써 양국 문화예술의 차이성과 유사성 발견을 통해 상호 문화적 이해를 도모하고자 합니다.

(2) 참여작가

<몽골(9인)>

BAT-ERDENE Damdinsuren , BAYARTSETSEG Dashdondov,
ARIUNTUGS Tserenpil, NANDIN-ERDENE Budzagd,
BADRAL Buyantogtokh, BAYAR MAGNAI Avirmed,
BOLORTUVSHIN Jargalsaikhan, ENKHBOLD Togmidshiirev,
ENKHJARGAL Ganbat

<한국(9인)>

권혁, 김성배, 김승영, 손몽주, 신용구, 이인, 이종재, 정재철, 차기울

<큐레이터>

김이선, Dalkh-Ochir Yonndonjunain



BAT-ERDENE Damdinsuren



BAYARTSETSEG Dashdondov



ARIUNTUGS Tserenpil



NANDIN-ERDENE Budzagd



BADRAL Buyantogtokh



ENKHJARGAL Ganbat



BAYAR MAGNAI Avirmed



BOLORTUVSHIN Jargalsaikhan



ENKHBOLD Togmidshiirev



권혁



김성배



김 승 영



손 몽 주



차 기 율



이 중 재



신 용 구



이 인



정 재 철

<개막 행사 Opening Events>

(1) 몽골 전통음악 앙상블 Altan Urag 공연



2002 년에 창단된 ‘알탄 우라그(Altan Urag)’는 전통적인 몽골의 사운드에 현대적 영향을 가미한 민속 락 밴드이다.

황금 혈통이라고 해석될 수 있는 ‘알탄 우라그’는 몽골의 문화를 세계에 알리고 몽골 내의 젊은이들에게 전통음악을 소개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밴드의 일곱 멤버 모두 몽골 전통 음악 교육을 받은 숙련된 연주자들이다.

(2) 강미리 [홀] 무용단 공연



<홀> 무용단은 한국 전통춤의 춤 정신을 가장 한국적이면서도 가장 현대적인 대담한 공간구성 능력으로 극장무용의 형태를 잘 살려내고 있는 안무가로 평가받고 있는 강미리 부산대 무용학과 교수에 의해 1998 년에 창단된 단체로, 한국 춤의 정체성과 창작, 민족적 움직임의 현대화, 인류 공유의 감정과 민족적 표현형식에 관한 해답 찾기에 작품의 가치를 두고 있다.

서울무용제, 한국무용제전, 지방순회공연 및 국내외 권위 있는 국제무용제 등을 통하여 인접 예술분야 종사자들과의 협동작업 등으로 한국무용 표현 영역의 확대와 새로운 양식의 극장춤 개발 및 창작춤의 근간이 되는 다양한 춤 언어가 담긴 작품을 공연하여 한국 창작춤의 새로운 미의식 창출과 춤의 대중화에 힘쓰고 있다.

이번 공연에서는 우리의 삶 속에 내재된 하늘의 삼신신앙을 생명사상으로, 땅이 베푸는 은혜를 풍요의 춤으로 표현하고, 그 하늘과 땅을 이어주는 사람의 숨결을 소리로 표현하고자 한다.

(3) 참여작가 퍼포먼스

- 신용구 -



< 바람을 안고 가다 >

그는 바람을 인생에서의 열망과 도전으로서 인식하고 있다. 그는 이 작품을 통하여 삶의 목표와 꿈에 도달하기 위하여, 통증과 고난을 극복하고자 하는 욕망을 표현하고 있으며, 그런 그의 생각들이 꽃과 나비로 표현되어진다.

- Enkhbold Togmidshiirev -



<MOTHER-CHILD>

모성이라는 것은 시작점이고 아이는 연속성이다. 그의 작품은 게르의 내부구조와 바깥공간, 즉 어머니와 아이의 상호관계를 나타내고 있다.